일제 철거 부석사 조사당 벽화, VR로 재탄생

국립문화재연구원 10월 27일 온라인 공개 · 학술토론회

고려代 조성된 最古 사찰 벽화
일제 철거해 액자로 담아 보관
철거 전 모습, 기록 통해 복원
벽화 3차원 시각화 최초 사례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VR콘텐츠로 재현된 국보 부석사 조사당 벽화. 고려시대 조성된 현존 최고(最古) 사찰벽화다. 하지만 일제 강점기 당시 해체돼 액자에 넣었다.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사찰 벽화는 국보 영주 부석사 조사당의 벽화다. 고려시대 조성된 부석사 조사당 벽화는 한반도에 화엄종을 처음 시작한 의상 스님(625~702)의 조각상을 봉안한 감실 맞은편 벽면에 6폭에 걸쳐 제석천과 사천왕, 범천 등을 그린 불교회화다.

벽화는 일제강점기인 1916년에 해체됐고 6폭의 벽화는 각각 벽체 뒷면 일부를 제거하고 석고로 보강해 액자에 넣었다. 이후 부석사 무량수전에 걸려 있다가 성보박물관에 수장됐다.

하지만, 석고로 인한 백색오염과 벽화의 노후로 박리와 균열이 생기는 등 구조적 손상도 심각해졌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원장 김연수)은 지난해부터 보존처리에 들어갔다. 또한 벽화를 해체 이전 모습으로 가상현실(VR, Virtual Reality) 공간에서 복원하는 작업에 착수해 최근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국립문화재연구원은 "우리나라의 유일한 고려시대 사찰 벽화인 부석사 조사당 벽화가 일제강점기에 벽에서 떼어지기 전 모습을 VR 콘텐츠로 복원해 10월 27일 온라인에서 공개한다"고 10월 25일 밝혔다.

국립문화재연구원은 전문가들과 함께 도상을 분석한 후 일제강점기에 조선총독부가 제작한 모사도(模寫圖) 원본과 초분광 카메라 촬영 결과를 활용해 철거되기 전의 벽화 모습을 도면으로 복원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벽에서 분리되기 전의 벽화를 3차원 공간 속에서 입체적으로 감상할 수 있는 가상현실(VR) 콘텐츠로 제작해냈다.

연구원은 "부석사 조사당 벽화의 이번 디지털 복원 VR 콘텐츠는 오랜 세월 손상된 벽화의 도상을 상세히 고증하고, 벽에서 그림이 분리되기 전의 모습을 3차원(3D)으로 시각화한 최초의 사례"라면서 "근대기 이후 벽화의 보존 이력을 기록한 시각자료들과 함께 전용 누리집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립문화재연구원은 10월 27일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에서 학술토론회를 열고, 조사당 벽화의 복원 성과를 공유했다.

'부석사 조사당 벽화의 도상 연구와 디지털 복원' 을 주제로 열리는 학술토론회에서는 △조사당 벽화의 근대기 기록과 디지털 복원 성과(박윤희, 국립문화재연구원) △조사당 벽화의 과학적 보존(정혜영, 국립문화재연구원) 등이 발표됐다.

국립문화재연구원은 "이번 부석사 조사당 디지털 복원 VR콘텐츠 공개와 학술행사를 통해 국민들이 디지털과 문화유산이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콘텐츠를 향유하고, 벽화 문화재의 보존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기대했다.

전국 사찰 일주문·문루들 보물된다


보물로 지정된 사찰 일주문들. 사진 왼쪽부터 순천 선암사 일주문, 문경 봉암사 봉황문, 대구 동화사 봉황문, 구례 천은사 일주문.

문화재청 10월 27일 지정예고
선암사 · 봉암사 등 일주문 4건
문루인 고성 옥천사 자방루도
실상사 편운화상탑 보물 예고

사찰 일주문은 사찰이 시작되는 영역을 표시하는 정문으로 기둥이 일렬로 배치된 독특한 형식의 문이다. 사찰 4곳의 일주문이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로 승격 · 지정된다.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순천 선암사 일주문' 등 8건의 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예고한다"고 10월 27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 예고되는 문화재들은 사찰 일주문 4건, 사찰 문루와 불전, 누정건축, 승탑 등 각 1건이다. 사찰 일주문이 보물로 지정예고된 것은 문화재청이 지난해부터 전국 50여 사찰의 일주문을 조사한 데 따른 것이다. 이후 문화재청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검토와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4곳의 사찰 일주문을 보물로 지정예고했다.

보물로 지정예고된 사찰 일주문은 △순천 선암사 일주문 △문경 봉암사 봉황문 △대구 동화사 봉황문 △구례 천은사 일주문이다.

'순천 선암사 일주문' 은 조계문(曹溪門)으로도 불리며 1540년 중창됐다. 선암사 일주문은 단칸 맞배지붕과 다포식 공포로 돼있으며, 기둥 구조는 기둥과 창방(기둥 상부에서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가로 부재)으로 단순하게 구성됐다.

'문경 봉암사 봉황문' 은 정확한 창건 기록은 없으나, 다른 기록을 통해 1723년 이전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일주문 앞쪽에는 '희양산봉암사(曦陽山鳳巖寺)' 라는 현판이 걸려 있고, 뒤쪽에는 '봉황문(鳳凰門)' 이라는 현판이 걸려있다.

'대구 동화사 봉황문' 은 1633년(선조 11년)에 처음 건립됐고, 1965년에 현 위치로 이건했다. 동화사 봉황문의 구조는 주기둥 상부에 비스듬히 부재를 덧댄 형태와 주기둥 옆에 2개의 보조기둥을 세운 형태가 혼합된 형식으로 매우 드문 사례이다.

'구례 천은사 일주문' 은 1723년에 창건됐으며 앞쪽에는 원교 이광사(1705~1775)가 쓴 '지리산 천은사(智異山泉隱寺)' 라는 현판이 걸려있다. 사찰에 화재가 자주 발생하자 원교 이광사가 흐르는 물과 같은 글씨체(水體)로 이 편액을 써서 걸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사찰 문루인 '고성 옥천사 자방루' 도 보물로 지정예고됐다. 상량문 등 기록에 따르면 1664년에 법당 맞은편에 위치한 정문(正門)으로 처음 건립됐고, 1764년에 누각형태로 중창돼 '정루(正樓)' 또는 '채방루(採芳樓)' 라 지칭했다.

이와 함께 '성남 봉국사 대광명전' 과 신라 말기 승탑인 '남원 실상사 편운화상탑' 도 보물로 지정예고됐다. '성남 봉국사 대광명전' 은 왕실의 주도로 1674년 창건된 사찰로, 대광명전의 목재 연륜연대 조사에서도 주요부재가 17세기 후반의 것으로 확인돼 봉국사 창건과 함께 세워진 불전임을 알 수 있다.

문화재청은 "내부 닫집의 화려한 구성은 해당 전각이 왕실의 지원 아래 조성됐을 가능성을 보여준다"면서 "불상을 중심으로 주변의 장엄을 돋보이게 치장한 방식은 조선후기 불전 사례의 하나"로 평가했다.

'남원 실상사 편운화상탑' 은 고승인 편운화상(?~910)에 대한 공양과 추모의 의미를 담은 승탑이다. 기단부와 탑신부를 비롯한 전체적인 비례와 비율 등이 조화로워 당대 최고의 장인이 설계와 시공을 담당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문화재청은 보물로 지정예고한 '순천 선암사 일주문' 등 8건의 문화재에 대하여 30일간의 예고 기간을 거친 뒤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포항 법광사지서 통일신라 금당지 발굴

경북문화재단 발굴 결과 발표
왕경사찰 나오는 녹유전 확인
불두 없는 180cm 불상 발굴
"불국사 비견되는 사찰" 주장


발굴조사 중 확인된 포항 법광사지 금당지 전경. 왕경사찰에서 사용되는 녹유전 바닥도 함께 확인됐다.

포항 법광사지에서 통일신라시대 금당지와 180cm에 달하는 불두 없는 거대 석조불상이 발견됐다.

경북문화재단 문화재연구원(원장 전규영, 이하 연구원)과 포항시(시장 이강덕)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실시한 사적 '포항 법광사지' 추가발굴조사에서 "통일신라 창건기 사찰에 해당되는 금당(절의 본당)지 기단 구조와 표면에 유리질의 녹색 유약을 바른 벽돌(녹유전) 바닥, 180cm 높이의 불두없는 불상 등이 확인됐다"고 10월 27일 밝혔다.

이번 발굴조사에 주목되는 것은 통일신라 금당지와 금당지 내 녹유전 바닥의 발견이다. 녹유전은 경전에서 극락정토의 땅을 유리 같은 대지로 묘사한 것을 재현한 것으로, 이 같은 녹유전은 경주 황룡사지, 사천왕사지, 불국사 등 통일신라시대 축조한 왕경 궁성과 중심사찰에서만 확인됐다.

또한, 불두는 없지만 그 높이가 180cm가 되는 거대 석불이 발견된 것도 주목할만 하다. 연구원은 "불상대좌에 봉안됐을 불상이 불두가 없는 상태로 두 조각으로 나눠 출토됐다. 불두가 없지만 높이가 180cm된다. 대좌를 포함하면 전체 높이는 460㎝ 이상으로 추정된다"면서 "505cm인 석굴암 불상보다는 작지만 신라 왕경인 경주 지역의 다른 불상과 비교해도 매우 큰 불상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불두에 부착됐던 흙으로 구워 만든 나발 160여점, 금동불입상, 향로, 정병 등 다수 유물이 금당지에서 발견됐다.

법광사지는 원효 대사가 신라 진평왕(579~632)의 명으로 창건했으며, 삼층석탑에서 나온 석탑기에는 828년 탑이 건립됐고, 846년에 이건됐다는 내용이 있다. 지난 2010년부터 시작된 법광사지 발굴조사는 통일신라부터 조선시대에 해당하는 50여기의 건물지와 위치에 따라 조성된 배수로, 산지가람의 대지 조성을 위한 석축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높은 사격을 알려주는 금동투조판, 금동장식, 귀면와, 막새 등 3000여점에 달하는 유물이 수습됐다.

문화재청은 "포항 법광사지는 불국사에 비교될 만큼 넓은 사역을 이루며, 왕실사찰에 걸맞는 격이 높은 유물이 출토돼 신라 사찰연구에 있어 중요한 유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간의 발굴조사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 포항시, 경북문화재단 문화재연구원과 통일신라 창건기의 원형과 향후 정비 방향을 논의하는 학술대회를 개최할 것"이라며 "향후 사적 정비 및 복원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한국불교상담학회 '심리상담사법' 논의

11월 12일 학술대회 개최

심리사법 제정을 앞두고 불교계 대응을 함께 모색하는 학술대회가 열린다.

한국불교상담학회(회장 안양규)는 11월 12일 오후 1시 30분 경주 황룡원 화랑홀에서 '불교상담과 심리상담사 법제정' 을 주제로 제18회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학술대회는 △심리상담사 법안 비교(선업 스님, 조계종 포교부장) △상담심리 관련 법제정에 대한 학교 및 불교상담의 역할(효록 스님, 동국대) △종교의 입장에서 본 심리상담사 법제화(박현민 신부, 수원 카톨릭대) 등이 발표된다. 논평에는 한국불교상담학회 학술이사 현암 스님, 김지명(동국대), 이채화(서울불교대학원)가 참여한다.

학술대회는 대면과 비대면 동시에 진행하며, 비대면 참가자는 웹엑스를 통해 접속하면 된다. 웹엑스 미팅룸 번호는 2558 656 699이며 패스워드 123456이다.

(010)2933-0061 하성미 기자

해인사 신라시대 쌍둥이 목불 '국보'됐다

문화재청 10월 26일 지정 공고
법보 · 대적광전 비로자나불상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조불상
"완성도 · 조형미 완벽" 평가돼
신흥사 영산회상도 보물 지정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목불인 보물 '합천 해인사 법보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사진 왼쪽)' 과 '합천 해인사 대적광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사진 오른쪽)' . 국보로 지정됐다.

현존하는 국내 목불(木佛) 중 가장 오래된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불상 2점이 국보로 승격했다.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신라시대 목조불상인 '합천 해인사 법보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 및 복장유물' 과 '합천 해인사 대적광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 및 복장유물' 을 국가지정문화재 국보로 지정한다"고 10월 26일 밝혔다. 또한 '속초 신흥사 영산회상도' 와 〈상교정본자비도량참법〉, 〈법화현론 권3~4〉 등 조선시대 불화, 고려 · 조선시대 경전 7건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했다.

지난 2012년 보물로 지정된 '합천 해인사 법보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 및 복장유물' , '합천 해인사 대적광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 및 복장유물' 은 본래 해인사 법보전과 대적광전에 모셔졌다가 현재 '대비로전' 에 함께 봉안돼 있다.

두 불상의 제작 시기는 개금과 지정조사 과정에서 실시한 과학적 조사를 통해 통일신라 9세기 후반인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2005년 개금과정에서 '중화삼년(中和三年, 883년)' 묵서명이 발견됐으며, 이후 박상진 경북대 임산공학과 교수는 질량분석이온빔가속기(AMS)를 통한 연구로 법보전 목조비로자나불의 조성연대가 AD740~950년 전후임을 밝히기도 했다.

해인사 법보전 · 대적광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은 완성도 측면에서도 뛰어난 조각기법을 보여준다. 수인(手印)인 지권인(智拳印)을 하고 한 쪽 어깨를 드러낸 옷차림, 둥근 얼굴과 당당한 신체표현, 신체를 자연스럽게 감싼 옷 주름 등은 9세기 석굴암 불상을 연상시킬 정도로 조각의 완성도가 높다.

복장유물 역시 미술사적 가치가 높다는 평가다. 1490년 불상을 중수하면서 납입한 복장유물은 조선 초기 왕실 발원 복장유물의 대표적인 사례이며, 완벽하게 보존된 후령통(喉鈴筒, 복장을 넣은 통)을 통해 16세기 복장의식집인 〈조상경(造像經)〉이 간행되기 전에 복장의식이 정립돼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문화재청은 "해인사 법보전 · 대적광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신라시대 목조불상으로, 당시 해인사의 화엄사상을 대변하는 대표적인 작품"이라며 "복장유물 역시 고려에서 조선 초기까지 납입된 물품의 목록으로 구성돼, 복장유물 절차 기원 등이 확인돼 그 가치가 높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문화재청은 조선시대 불화인 '속초 신흥사 영산회상도' 와 고려~조선시대 불교 전적 5점 등 7건에 대해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예고 했다.

'속초 신흥사 영산회상도' 는 1755년(영조 31) 수화승 태전을 비롯한 10명의 화승이 제작한 불화로, 해외로 유출된 후 60여 년 넘게 전해져 내려오다 2020년 미국에서 환수됐다.

신성민 기자